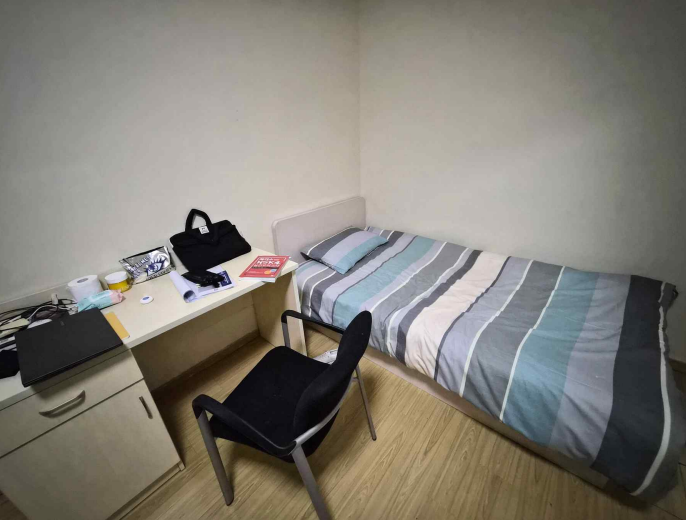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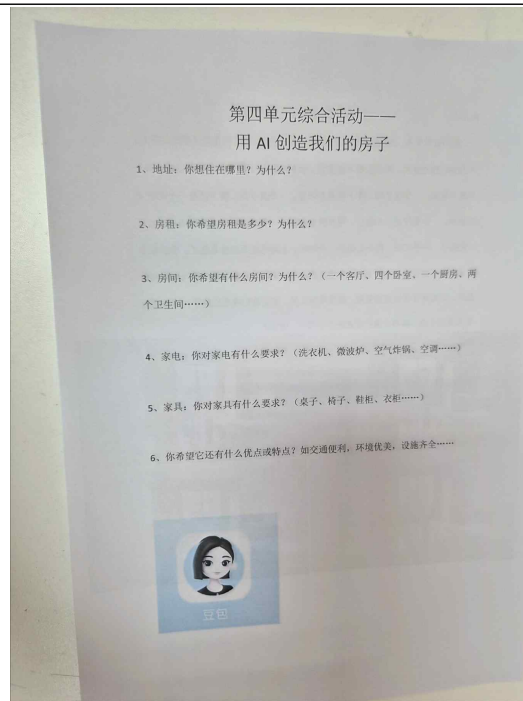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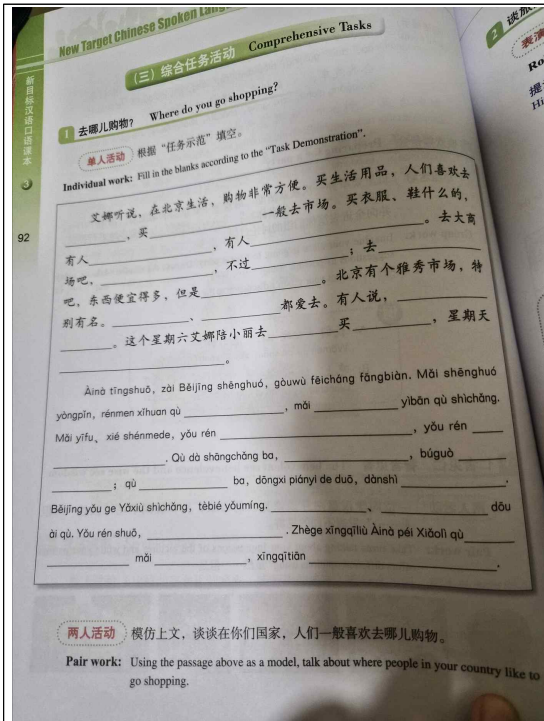


	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		 지역과 함께 100년, 학생과 함께 미래로!
소속	([REDACTED])		
성명	[REDACTED]		
참가 프로그램	2026 화동사범대학 겨울 연수		
프로그램 참가기간	20260104~20260130		
현지연수 파견 전 - 화동사범대학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겨울 연수 활동에 대해 조사한 뒤 신청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 절차를 밟아 신청을 했습니다. (알리페이등등 결제를 하기 편한 어플을 준비해 두어야 신청하기 편합니다.) - 신청을 마친 뒤 학교에서 온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였습니다. - 메일에 온 내용을 따라 기숙사 신청을 하였습니다. < 학교사이트에 기숙사의 사진이 나와있으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. 다만 저는 확인한 방의 모습과 실제 방의 모습이 달랐습니다. - 공항까지 가는 차편과 항공편을 미리 구매합니다.			
			
학습 및 체험 활동 - 월~금 아침 9시부터 11시30분까지 강의를 듣습니다. 중국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며 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(class1~6) - 화요일에는 오후 강의를 있으며 (1시 30분~ 3시) 수요일에는 밖에서 활동 목요일에는 개인 튜토링을 진행합니다. (수,목 활동은 자유) - 중국 전통 활동을 하기도 하며 상하이의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.			



참가 성과

- 겨울 연수를 통해 전보다 중국어 회화가 트였습니다. 전에는 말이 안 나왔다면 지금은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는 못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중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더해서 귀가 트여서 전에는 본인이 알아듣지 못할거라고 상정하고 아는 말도 듣지 못했다면 지금은 아는 말이라면 들리게 되었습니다.
- 강의를 들음으로써 좀 더 실생활에 쓰이는 중국어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.

소요경비

프로그램 비용 신청비용까지 약 130만원

항공료 왕복 약 50만원

보험료 약 2만원 (트립닷컴에 딸려있는 보험을 결제했습니다.)

숙박비용 약 40만원 (가장 저렴한 기숙사였으며 공용 화장실을 사용합니다.)

식비, 개인 경비 약 80만원 (학교내의 학식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나 여행을 다닐 것이라면 더 넉넉하게 챙기는 편이 좋아보입니다.)

합계 약 300만원

느낀 점

사실 오기까지 고민이 많았고 오고 난 직후에는 상당히 후회를 하였으나 지내면서 여러 경험 이 쌓이게 되어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. 귀와 입이 트이기에는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

가는게 좋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받아 오게 되어 기뻐다.

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

- 우선 전공 공부를 더 할 생각이다. 전보다는 늘었지만 좀 더 현지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단어를 외워서 듣고 말하는게 더 매끄럽게 되어야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한다.
- 중국어 뿐만이 아니라 영어또한 노력하여 습득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공용어인만큼 해외에 나갔을 때 현지의 언어 말고 추가로 할 줄 아는 언어가 있다면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- 언어공부를 하며 동시에 여러 자격증을 딸 필요성을 느꼈다.

조언

- 해당 국가(중국)에 올 생각이라면 WE CHAT과 알리페이 모두 준비해 오라는 말을 하고 싶다. 중국은 많은 것을 QR코드로 해결하며 휴대폰만 있다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거의 필수이다. 더해서 중국번호가 없으면 택시를 타거나 배달음식을 시킬 때 등등 많은 일이 막힐 수 있으므로 필수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.